

스노보드 최가온, 유망주에서 대세로…밀라노 향해 날다

월드컵 2개 대회 女 하프파이프 연속 우승…올림픽 앞두고 상승세
“‘스위치 백텐’ 기술 준비…올림픽서 최고의 경기 보여드리고 싶어”

2008년생 여고생 스노보드 최가온(세화여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궤조의 컨디션을 뽐내며 ‘인생 연기’를 꾸꾸고 있다.

최가온은 지난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코퍼마운틴에서 열린 2025-2026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4.50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12일 중국에서 열린 시즌 첫 대회에 이은 월드컵 2개 대회 연속 우승이다.

최가온은 “한 시즌 두 번 우승은 처음이라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그래도 그동안 준비해온 것이 결과로 나온 것 같고, 무엇보다 부상 없이 제 경기를 잘 마무리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는 반 원통형 슬로프에서 공중회전과 점프 등의 연기를 심판들이 채점해 순위를 정하는 경기로, 손 화이트, 클로이 김(이상 미국) 등 경쟁한 선수들이 겨워 온 종목이다.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2연패를 달성한 클로이 김이 여자부에서는 최강자로 군림해왔으나 이번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는 최가온이 대세로 떠오르는 분위기가.

최가온은 만 15세가 채 되지 않은 2023년 1월 세

계적인 익스트림 스포츠 이벤트 X게임에서 최연소 기록으로 파이프 종목 우승을 차지하고 같은 해 12월 생애 첫 월드컵 우승을 달성해 혜성처럼 등장했다.

한창 성장세이던 2024년 초 스위스 락스에서 열린 월드컵에 출전했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대에 오르기도 한 그는 1년을 꼬박 재활에 매달린 끝에 올해 초 월드컵 무대에 복귀했고, 이번 시즌엔 현재 가장 폼이 좋은 선수로 평가된다.

최가온은 “시즌 초에는 불안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올라와 있다는 느낌이 들고 안정적이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살면서 가장 큰 부상이었기에 재활도 힘들었지만, 두 번째 수술 이후 한국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삶이 무료하다고 느껴져 ‘보드를 타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게 다시 설 수 있었던 원동력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코퍼마운틴 월드컵에선 최가온과 클로이 김의 결선 대결이 성사돼 눈길을 끌었으나 클로이 김이 연습 중 몸이 좋지 않아 경기를 포기하며 불발됐다.

앞서 두 차례 월드컵 우승 때는 클로이 김이 불참했기에 최가온으로선 ‘정면 승부’로 우승에 도전할 기회였던 터라 아쉬움이 남을 법하다.

클로이 김을 롤 모델 삼아 온 최가온은 “클로이

언니가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 결선에서 못 만난 것은 아쉬움이 아예 없고 할 수는 없지만, 서로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보고 싶다”면서 “그런 상황이 올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월드 클래스’였던 최가온이 이번 시즌 최정상급의 입지를 굳히며 한국 스키·스노보드는 사상 두 번째 올림픽 메달, 나아가 첫 금메달까지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2018년 평창 대회 때 이상호가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딴 것이 한국 스키·스노보드를 통틀어 유일한 올림픽 메달이다.

“진짜 올림픽이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싶다. 다른 때에 비해 관심도 더 받는 것 같고 긴장감도 생긴다”는 최가온은 “처음이라 당연히 기대되고 즐겁고 출전 자체가 의미 있지만,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준비하러 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최가온은 최근 월드컵에서 주행 반대 방향으로 공중에 떠올라 두 바퀴 반 회전하는 주 기술 ‘스위치 백나인’에 성공하며 실전 경쟁력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반 바퀴 더 돌아 세 바퀴 회전을 하는 ‘스위치 백텐’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여자 선수는 성공한 적이 없는 기술이다.

최가온은 “올림픽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다. 노력해온 성과를 다 펼쳐 보이고 싶다”면서 “100%를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가온이 지난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코퍼마운틴에서 열린 2025-2026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빙속 김민선·이나현·김준호, 밀라노 올림픽 출전권 확보

ISU 국가별 쿼터 발표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단거리 투톱 김민선(의정부시청), 이나현(한국체대)과 남자 단거리 간판 김준호(강원도청), 매스스타트 남녀 에이스 정재원(의정부시청), 박지우(강원도청) 등 주축 선수들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지난 20일 각국 연맹에 내년 동계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별 출전권을 집계해 전달했다.

빙상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여자 500m 3장, 여자 1000m 2장, 여자 1500m 1장, 여자 매스스타트 2장, 남자 500m 3장, 남자 1000m 2장, 남자 매스스타트 2장을 배분받았다.

관계자는 “ISU가 내년 1월 올림픽 출전권을 재조정할 계획”이라며 “선수 기권 등으로 추가 획득 여지가 있지만, 출전권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ISU는 월드컵 1~4차 대회 순위와 기록으로 세부 종목 쿼터를 배분했다.

김민선과 이나현은 여자 500m와 1000m 월드컵 랭킹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무난하게 출전권을 획득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를 마친 대표팀 선수들이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선은 2018 평창, 2022 베이징에 이어 3년째로 동계 올림픽 무대에 선다. 그는 지난 15일 노르웨이에서 열린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500m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올림픽 입상 기대를 높였다.

이나현은 밀라노 무대가 올림픽 데뷔전이다.

남자 단거리 간판 김준호 역시 밀라노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그는 올 시즌 월드컵 랭킹 9위에 올라 남자 500m 올림픽 티켓을 확보했다.

김준호는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33초 78의 한국기록으로 동메달을 땀고 월드컵 2차 대회 남자 500m 1차 레이스에선 우승했다.

2014 소치, 2018 평창, 2022 베이징에 이어 네 번째 올림픽에 출전하는 김준호는 생애 첫 올림픽 메달을 노린다.

박지우는 여자 1500m와 매스스타트, 정재원은 남자 매스스타트에 출격한다.

평창 올림픽 남자 팀 추월과 베이징 올림픽 매스스타트 은메달리스트인 정재원은 3연속 올림픽 메달을 노린다.

한국은 여자 1000m, 여자 1500m, 남자 1000m, 남자 1500m, 남자 팀 추월 예비 쿼터도 획득했다.

전남 장애인 사격 이윤리, 체육진흥상 수상

전남도 장애인 사격 국가대표 이윤리가 체육진흥상을 받았다.

이윤리는 최근 이천국가대표선수촌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 시상식에서 전문체육 선수 부문 진흥상 수상자로 단상에 올랐다.

《사진》 이윤리는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사격 3관왕에 오르는 등 국내 외 각종 경기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장애인 체육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심정진 회장은 업무유공상

수상자가 됐다.

심 회장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전남선수단이 역대 원정 최고 성적인 종합 7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에 이바지하면서 표창을 받았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인들의 사기 진작과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매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체육진흥상, 공로상, 홍보상, 업무유공상 등 10개 부문의 시상이 진행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페퍼스의 조이(왼쪽)가 지난 20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의 원정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한 뒤 시마무라, 박정아(오른쪽)와 기뻐하고 있다. <KOVO 제공>

조이 ‘트리플 크라운’·박정아 5500공격 득점 달성

페퍼스, 웃지 못했다

흥국생명에 1-3패…8연패

페퍼스축은행 A페퍼스의 주포 조이가 두 번째 트리플 크라운 기록을 작성했다. 토종 공격수 박정아는 5500공격 득점 기록을 달성했지만 팀의 연패는 끊지 못했다.

페퍼스가 지난 20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진에어 2025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과의 원정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1-3(22-25 25-14 20-25 21-25)으로 패했다.

11월 21일 정관장전을 끝으로 승리를 만들지 못한 페퍼스는 이날 패배로 ‘8연패’ 늪에 빠졌다.

페퍼스의 ‘쌍포’ 조이와 박정아가 기록의 날을 보냈지만 팀의 연패를 끊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이는 흥국생명을 상대로 38점을 폭발했다. 지난 12일 정관장과의 홈경기에서 34점을 만들

었던 조이의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 새 기록이다. 여기에 조이는 후위 공격 9개, 서브 에이스 3개, 블로킹 득점 3개를 장식하면서 V리그 데뷔 이후 두 번째 트리플 크라운도 달성했다.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박정아는 1~4세트에서 교체 출전했다. 5차례 공격을 시도한 박정아는 4득점을 올리면서 공격 성공률 80%를 기록했다.

박정아는 통산 438번째 경기였던 이날 5500 공격득점을 넘으면서 양효진(공격 득점 6098개·현대건설)에 이어 두 번째 ‘5500공격 득점’ 주인공이 됐다.

조이의 활약과 박정아의 기록에도 뒷심싸움에서 밀린 못한 페퍼스는 26일 오후 7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를 상대로 연패 탈출을 노린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극관현악단 특별기획연주회
1229 여객기 참사 추모음악회 '진혼, 기억'

일시 : 2025-12-26(금)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401

광주예술의전당 특별기획연주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음악회 '179명의 이름을 기억하며'

일시 : 2025-12-27(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